

사회주의 기독교, 둘을 위해 '헌신'하다. 도로서 데이.

심장중의강철

https://youtu.be/5YJ55KT_5Q8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조합은 매우 신비로울 조합일 것입니다. 이 둘은 시작부터 적대적 관계로써 시작하였고 사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층이 권력층과 결합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관계속에서도 기독교(특히 천주교)자들 중에서는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실 '사회주의의 이상'은 이미 기독교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신학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알아볼 '기독교 사회주의자'는 그런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특이한 인물입니다.



도로시 데이의 사진.

도로시 데이. 기독교 사회주의자중에서도 꽤나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1897년 11월 '개신교'집안에서 태어나 일리노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2년 정도 있다가 포기하였습니다.) '사회당'에 입당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던. '개신교 사회주의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신교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그녀의 아버지는 여성이 무슨 노동이냐며 노발대발했지만요)



신문기자 활동 당시 도로시 데이

그녀는 확고한 사회주의자로서 길을 좁혔습니다. 러시아의 2월 혁명을 기념했으며 트로츠키와도 인터뷰를 하였고 I.W.W(세계산업노동자연맹)에서의 생디칼리즘적 활동, 톨스토이의 책을 통한 이론적 습득을 통해 그녀는 점점 좌익적 사상으로 가기 시작하였고 특히 아나키즘에 대해 큰 관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거나 여성들의 참정권의 대한 투쟁

을 하는 등 여러 투쟁을 거쳤었죠

그러나 '정부'는 그녀를 두고볼 수가 없었고 (여타 다른 사회주의자들 처럼) 그녀를 30년의 감옥형에 처하는 등 고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단식투쟁등을 하였고 나온 이후에도 그녀는 여러 개인적 불행(특히 그녀는 신문기자였던 모이즈와 사랑하여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슬픈 경험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파혼등의 경험을 겪었죠)등을 겪었으며 그녀는 그런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다시금 복지활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기아행진에 참여하면서 그는 여러지역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나키스트였던 베타햄과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전에 있던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북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큰 사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북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며 “해변을 걷고,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그 사람 곁에 앉아쉬고, 잔잔한 만으로 나가 함께 배를 짓고, 들판과 숲을 돌아다녔다. 내게는 온전히 새로운 경험, 생명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데 경험이었다.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라. 어떻게 하느님이 없을 수 있을까?."라를 말과 함께 기존에 어느정도 희미해졌던 종교적인 사상이 다시금 칠해지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잡고자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며 (이 과정속에서 무신론자였던 베타햄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라고 자신은 주장)'.

그녀는 이후로도 줄곧 자신의 사상을 잊지않았으며 계속된 반전활동, 가톨릭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자 직접행동, 빈곤구제, 평화운동을 지속하였으며 83세의 나이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묘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느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다.



흑인민권운동 당시 '나도 사람이다.'라는 팻말을 걸고 행진하는 '흑인'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벧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벧이 된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요한복음서 15장

도로시 테이의 사상은 참으로 과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그렇기에 미국 내의 가톨릭주의자들(특히 애국주의적 가톨릭주의자들)사이에서 공격받기도 하였고 또한 반대쪽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미국 공산당등)한테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정확히 무엇이였을까요?

그녀의 사상은 참으로 인류애적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부성애나 모성애같은 사랑이 아닌 말 그대로 '인류가 가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여러 '외로움'의 비극을 겪었고 그렇기에 더더욱 사랑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인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또한 여성들이 가졌던 차별(특히 도로시 테이는 처음에 나왔듯이 아버지가 여성이 어딜 노동하냐고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을정도였습니다.)에 대해 적극적 반대를 외치며 언제나 시위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근거로 예수의 말을 들고나왔습니다. 예수는 모두를 사랑했으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길 원했으니까요

예수는 빵을 주셨는데 누가 빵을 강탈하리?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위에서도 말했듯 그녀는 '아나키스트'였습니다.(엄밀히 따지자면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에 더 알맞다고 봅니다.) 특히 그녀는 톨스토이 외에도 크로포트킨, 엠마 골드만등을 읽었으며 샤코와 반체티가 처형당했을때 슬퍼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의 '빵의 쟁취'의 대한 관점은 그런 도로시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이 '빵'을 얻는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IWW에 들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또한 '천주교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복지'를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는 (전에 말한 아나키스트들이 말하는 투쟁으로 쟁취한 자율복지)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자선과 복지는 행복의 근원이다.

우리 모두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덜 가지면 한 사람 몫이 더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항상 한 사람 몫의 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도로시 데이 - 성체대화때 한 말

그녀는 노동자들의 권리 외에도 '빈자'들의 대한 자선과 (자율)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네 집은 기도하는 이들의 집이었다.'라는 말처럼 '환대하는 집'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돌보았으며 (당시 대공황이었던 미국에서) 이런 '빈곤한 실업자'들을 만들게 한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1]

여성들을 억압하지마라 그들도 사람이지 아니한가?

나는 나의 일에 대한 기자의 입장을 따르기도 하였다. 나는 '여성이 해야하는 일'을 쫓아낼 것이고

남성이 가지던 '특권과 일'을 할 것이다. 나는 피켓을 들고 감옥에 투옥도 될 것이며 글을 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끼치며 세상에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기도 싶다.

이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야망과 '이기심'이 있어보이는가?

그리고 그녀는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평등주의자로서 자선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자유'를 중시하는 이로써 여성들의 억압받던 현실또한 비판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무시받던 '페미니즘 신학'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여성 신학도들을 모집하였고 '천주교'가 가지던 '여성 혐오적 행태'를 비판하여 그대들이 진정한 '하느님의 종'이라면 그런 '불의'를 고쳐야한다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기에 여성들의 참정권, 노동권, 평등권등의 '여성 해방사'에 굵직한 일들에 모두 참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생 헌신하라, 가난한 이를 위해 살아라.

"우리 모두 오랜 외로움을 안다. 우리 모두 유일한 해답은 사랑임을, 그 사랑은 공동체와 함께 오는 것임을 이제 안다."

...

"그녀는 일생 동안 괴로운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한 사람은 괴롭게 했다."

도로시 데이(위) 노트르담 대학 레테르 훈장 수여식(아래)

그녀의 삶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었고 한평생 불의에 반대하였고 많은 이들(특히 보수와 손잡던 가톨릭)에 공격에 굴하지 않고(심지어 과격 KKK단체가 그녀를 암살하려고도 했을정도였습니다.) 되려 그들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재산조차 남기지않았으며 묘비에서마저도 어떠한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이런 고난을 준 하느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죽어서도 이어졌습니다. 세인트폴에 있는 '가톨릭 자선단체'가 운용하는 노숙자 보호소의 이름은 한평생 가난한 이를 위해 집까지 내줬던 그녀의 이름을 빌려 '도로시 데이 센터'라고 지어졌으며

그녀의 여성해방적 사투를 높이기려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측에서도 그녀를 높이기려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위대한 4명의 미국인에 그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사 또한 그녀의 이름이 크게 퍼지게되었습니다.

[1] 도로시 데이는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을 사용하여 비판하였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